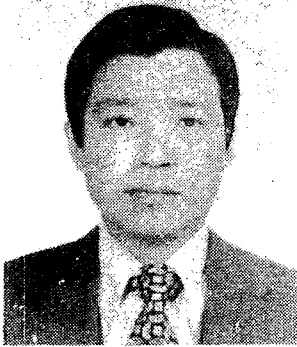


綜合 科學으로서의 環境保全



金亨徹
(本報 편집위원)
(環境庁 計劃調整局長)

실로 環境保全은 綜合科學性이 그 속성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속성이 環境人을 얼마나 괴롭히고 무력감을 절감케 하였는가를 트빌리시會議가 “環境 專門人力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주요 토론과제로 했던 예를 보더라도...

環境汚染이 現代科學이 총동원된 發展의 逆機能이라는 것이 事實인 것과 같이 이를 改善하고 保全하기 위하여서는 現代科學이 總動員되어야 한다는 것도 否認할 수 없는 事實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環境保全을 위하여서는 自然科學, 技術科學뿐만 아니라 人文社會科學까지도 寄與하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며 現實의으로 環境保全對策에 있어서는 이러한 各分野의 有機的 協調가 그 成功與否의 열쇠가 된다.

이런 점은 環境保全對策의 分野가 어떻게든 地域的·財政的 規模가 어떻게든, 그리고 公的對策이건 私的對策이건 差異가 없다.

그런데 環境保全業務에 몸 담고 있는 個人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各自가 그 專門領域에 대하여는 氣蓋世의 能力을 가졌다고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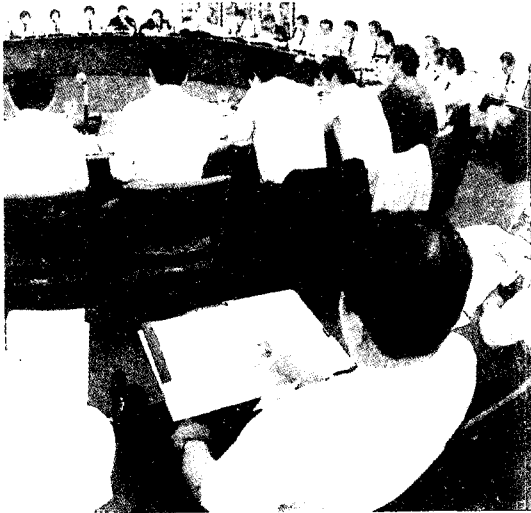


더라도 現代科學의 모든 분야에 걸쳐 通達하기는 人間이 神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專門領域 相互間의 긴밀한 협조가 절대

로 요구되게 된다.

자, 그건 그렇다치고 다시 專門領域 相互間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對策을 組織化(Organization-making) 하게 되는 連結點의 機能을 담당하는 자가 전반적인 科學諸分野에 대하여 常識以上の 그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실로 環境保全은 綜合科學性이 그 屬性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屬性이 環境人을 얼마나 괴롭히고 無力感을 切感케 하였는가는 트빌리시



會議가 環境專門人力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主要討論課題로 했던 예를 보더라도 알 수 있겠다.

결국 環境전문인력이란 자기의 專攻分野에

근래에 특히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제반안목에 바탕을 둬서 없이 현상을 곧 문제로 걸론 지우거나 문제의 해결로 유도함으로써 環境保全을 그릇치는 일이 있다는 점이다.

대하여는 徹底한 能力을, 隣接科學分野에 대하여는 對話가 可能한 정도의 能力을 갖춘 것이라고 일단은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다.

幸이든 不幸이든, 自意건 他意건간에 環境에 몸담고 環境保全에 盡力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런점을 생각해 보고 姿勢를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첫째, 各自의 能力을 더욱 研鑽해야겠다. 이는 구태여 環境人에게만 필요한 姿勢는 아니겠지만 特別히 環境人에게는 特別히 必要한 것이다. 그 이유에 관하여서는 다시 거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 隣接科學에 대한 知識의 함양에 힘써야겠다. 이는 世界的으로 論議한 結果에 비추

환경전문인력이란 자기의 전공분야에 대하여는 철저한 능력을, 인접과학분야에 대하여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능력을 갖춘 것이라고 일단은 대체적인...

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各自가 업무를 치루다가 보면 언제나 느끼는 現實問題가 아닌가?

셋째, 環境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環境이 보다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자라면 環境문제를 바라보는 眼目을 단편적으로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시점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시간경향으로서 이해 할 수 있도록 키우고, 올바른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도록 하여야 겠다. 근래에 특히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이런 안목에 바탕을 둬서 없이 현상을 곧 문제로 걸론지우거나 문제의 해결로 유도함으로써 環境보전을 그릇치는 일이 있다는 점이다. 怪疾與否를 둘러싼 尙간의 疑惑이 그렇고 漢江물이 맑아졌다고 安心하는 人心의 야박함이 그렇다.

年前에 本人에게서 직접 들은 얘이지만 美國의 世界的인 權威週刊誌의 編輯人까지 지낸 그 사람은 環境에 몸담은지 2년만에 남들이 자신을 環境전문가라고 부르고 자기도 얼마되지 않아서 스스로 環境전문가가 되었노라는 逆說的인 戲言을 들은 바 있다.

戲言으로 들어넘기거에는 너무나 씩씩하고 낯뜨거운 경험이었다.